

제1회 '금융위인상' 시상, 탁월한 성과에 파격포상

- 국정철학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
- ①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②새도약기금 신설, ③주가조작 폐가망신 실현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총 1,800만원의 포상과 금융위원장 표창 수여

1. '금융위인상'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 : 이억원)는 '26.4.10일(금), 제1회 「금융위인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소속 직원 3명에게 총 1,8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이번 포상은 국민주권정부의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그에 걸맞는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사기를 높이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금융위인상」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금융위원회 사람(人)에게 주는 상’이자 ‘국민의 삶을 바꾸는 금융 혁신을 이뤄낸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룬 공무원을 마땅히 예우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수상자는 금뿔이상(1,000만원), 은뿔이상(500만원), 동뿔이상(300만원) 각 1명으로, 금융위원장 표창·포상금과 함께 특별 제작된 메달이 수여된다.

※ 금뿔이상·은뿔이상·동뿔이상은 금융위원회 마스코트 '뿔이'의 이름을 활용

포상 대상자 후보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추천과 내부 직원 추천 등을 통해 모집하였으며('26.2.26~3.20.), 내부 인사 4인·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성과의 파급력, 난이도,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포상 대상자 3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2. 포상자 주요 공적사항

① 이용준 사무관 : 자본시장 체질개선 종합방안 마련

금융이상 수상자인 자본시장과 이용준 사무관은 지난 '26.3.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표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총괄하고 중복상장 원칙금지, 저PBR기업 가치제고 촉진,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확대, 토큰증권 활성화 등 여러 과제를 담당하며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은 중동 불안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이라는 우리 자본시장이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과감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② 이상원 사무관 :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새도약기금 신설·운영

금융이상 수상자인 서민금융과 이상원 사무관은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켜 장기간 빚(7년 이상, 5천만원 이하)으로 고통받는 국민 약 113.4만명에게 희망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은행·보험·카드·저축은행 등 광범위한 금융업권의 협약 참여를 조율하고,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 완화를 위한 방지체계를 구축하여 지난 '25.10.1일 새도약기금이 공식 출범하였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이후 '26.3월 기준으로 총 8.2조원(64만명) 규모 채권을 매입 완료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총 1.8조원(20만명) 규모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소각하여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였다.

③ 정인건 주무관 : 첨단 포렌식 기법을 활용하여 주가조작 패가망신 실현

금융이상 수상자인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정인건 주무관은 '25.7월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핵심 포렌식 전문가로서, 첨단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하여 지능형 자본시장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방대한 압수 데이터를 단기간 내 정밀 분석하고, 혐의자들의 안티 포렌식 기법에 대응하여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통화녹음과 같은

핵심 증거를 복원하는 등 합동대응단 ‘제1호 사건(재력가 집단의 1,000억 원 규모 대형 시세조종)’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압수수색 및 증거 분석을 수행하였다.

3. 향후계획

이역원 금융위원장은 “혁신적 성과를 낸 공무원이 확실히 인정받는 조직이 국민을 위한 더 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탁월한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역대 수상자들의 성과를 청사 내 「금융위인전(展)」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인전은 수상자들을 명예의 전당 형식으로 전시하는 공간으로, 탁월한 성과가 조직의 기억으로 쌓이고 후배 직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26.4.20일(월)부터 제2회 「금융위인상」 후보에 대한 대국민 추천을 접수하고, 6월 중 제2회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붙임】 1. 포상자 주요 공적사항 세부내용

담당 부서 <총괄>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원태 (02-2100-2780)
		담당자	사무관	임승수 (02-2100-2785)

1. 이용준 사무관 : 자본시장 체질개선 종합방안 마련

□ 추진배경

- 정부출범 이후 자본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여 코스피 5,000시대를 빠르게 달성
- 국민들이 계속해서 우리 증시가 장기 우상향 한다는 신뢰를 가지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 필요
 - 최근 중동불안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우리 자본시장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아닐지”라는 투자자 불안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체질개선의 시급성·중요성 제고

□ 주요성과

-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 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마련·발표
-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 저PBR기업 가치제고 촉진방안,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방안,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확대 방안, 토큰증권 활성화 방안 등 여러 과제 담당자로서 세부 개선방안* 마련

* [중복상장] 중복상장 심사대상·심사기준(안) 마련, 모회사 이사회 주주충실의무 부여
 [저PBR] 저PBR 기업 Naming&Shaming 조치안 마련,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촉진
 [상장폐지] 4대 상장폐지 요건강화(동전주, 저시가총액 등), 집중관리기간 운영
 [맞춤형 기특] '26.1.1일 AI·우주·에너지 도입, '26년 중 6개 분야(잠정) 추가도입 추진
 [토큰증권] 기술인프라·발행·유통·결제 등 세부제도 설계방향 마련(토큰증권 협의체)
 [기타] 코넥스 인큐베이팅 기능 제고,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확대 유도(평가지침 변경)

□ 기대효과

- 중동불안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자본시장이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이고 과감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

2. 이상원 사무관 :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새도약기금 신설·운영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취약계층·소상공인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및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우리 사회 통합 차원에서 부채 부담 경감 대책 마련이 필요

□ 주요성과

- '25.10.1일 새도약기금* 공식 출범, 15개 대표기관과 협약 체결을 완료하여 소 금융업권 참여 기반 마련
 - * 금융회사별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채을 일괄 매입하여 상환능력(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
- (채권 매입) '26.3월말 기준 총 8.2조원(64만명) 대상채권 매입 완료
 - 1차('25.10.30): 공공기관(캠코, 국민행복기금) 5.4조원, 34만명
 - 2차('25.11.27): 은행·생보·대부 등 20.8조원, 7.6만명
 - 3차('25.12.23): 카드·캐피탈·손보·대부 등 2.0조원, 22.4만명
 - 4차('26.2.26): 지신보·상호금융·대부 등 4,409억원, 4.7만명
- (채권 소각) '26.3월말 기준,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 심사생략대상인 채권 총 1.8조원(20만명) 소각

□ 기대효과

- 채무 조정을 통해 장기 연체자들의 제도권 경제 복귀를 돕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 가능

3. 정인건 주무관 : 첨단 포렌식 기법을 활용하여 주가조작 패가망신 실현

□ 추진배경

- (국정과제) 지능화·조직화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불법행위 근절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시급
- (전문역량 필요) 은폐된 범죄 증거 확보를 위해 고도의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기존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 필요

□ 주요성과

- (금융범죄 혐의입증)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25.7.30.) 이후 강제조사권을 통해 압수수색 다수* 집행, 과학적 조사기법(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및 혐의 사실 규명
 - * [관련 언론기사] 재력가 집단 시세조종 사건 압수수색('25.9.23.), 금융회사 직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건 압수수색('25.10.28.), 언론사 소속기자 선행매매 사건 압수수색('26.2.6.)
- (제1호 사건) 압수를 통해 수집된 증거를 정밀 분석하여 중요증거인 카카오톡,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 삭제된 텔레그램을 복원하여 혐의 입증
 - ⇒ 혐의자 11인을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고발('26.3.11.) 조치
- (제2, 3호 사건) 혐의자들의 모바일, 노트북, 은닉된 서버 로그 정보 등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복구하여 조사중
 - ⇒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의혹을 규명

□ 기대효과

- (경제질서 확립) 포렌식 기반의 조사체계를 정착시켜 지능형 금융범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사상 최고 코스피 지수 달성에 기여